

#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명 속

**주제분류** 과학철학, 존재론, 논리학, 방법론

**주요어** 언어적 전략, 존재론 탐구의 방법, 존재론적 언질 기준, 변형, 변형의 값

## 요약문

콰인은 분석철학자들의 형이상학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고 형이상학을 존재론으로 재건함으로써 존재론을 과학의 한 분과로 확립하려 한다. 그러나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 있는 콰인은 철학자들이 과학자처럼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탐구한다거나, 전통적 형이상학자처럼 어떤 통찰력에 의해 세계의 본성을 밝히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콰인은 언어적 전략에 따라 존재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존재론 탐구의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석철학자들이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콰인의 기준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준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다소 수정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 글은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콰인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 1. 시작하는 말

콰인은 논리실증주의가 주도했던 시기의 분석철학에 만연되어 있던 형이상학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고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재건하려 한다. 콰인은 존재론의 핵심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를 묻는 물음으로 보고,<sup>1)</sup> 이 물음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철학자는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 있는 콰인은 철학자들이 과학들처럼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탐구한다거나, 종래의 형이상학자들처럼 철학자 특유의 어떤 능력에 의해 세계와 실재의 본성을 밝히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에 신비로운 직관이나 통찰에 호소해서 존재 문제를 밝히려는 전통적 형이상학적 탐구는 우리의 세계 이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끝없는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콰인은 존재 문제를 직접 규명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이런저런 주장들에 대해 검토하는 언어적 전략을 취한다.

콰인은 러셀의 기술 이론과 현대 논리학의 기법을 동원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론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언질을 주는 대목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확립하려 한다. 콰인은 이 기준이 확립되면, 존재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존재론 탐구의 방법이 확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분석철학자들이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콰인의 기준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준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다소 수정하기

---

1) Quine,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3 쪽 참조.

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 글은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소개한 다음, 이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 2.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

콰인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들이나 이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존재 문제를 직접 밝히고 있는 전통적 존재론들을 분석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어휘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한다.

전통적 존재론들에 대한 콰인의 논의는 「존재하는 것들에 관하여」 라는 그의 논문 속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요점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 등장하는 McX나 Wyman과 같은 부류의 철학자들이 보편자나 어떤 추상적 대상을 명명하거나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일반명사나 추상명사는 물론이고 어떤 개별적 대상을 명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칭명사까지도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라) 그 명사를 포함하지 않는 한정기술로 바꾸고, 이 기술들이 나타나는 문장은 다시 그 문장의 진정한 논리적 형식을 보여주는 양화문장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원래의 문장에서 대상을 언급하는 표현으로 보였던 한정기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존재론에서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은 명사가 아니라, 양화변항이다. 이와 같이 명칭들의 도움을 받아 말할 수 있는 것을 명칭들을 완전히 피한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론에 사용된 명칭이나 명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컨대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존재론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기술이론에 따라 번역된 문장 속의) 양화변항이다.<sup>2)</sup>

2) Quine, 같은 책 3-11쪽 참조.

콰인은 전통적인 존재론뿐만 아니라, 일상의 담화나 과학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은 명사가 아니라, 양화변항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어휘 습득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한다.

어린아이의 어휘 습득의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대상들을 식별하고 대상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우유’ 같은 말을 계속해서 적절한 감각적 자극에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배운다<sup>3)</sup>.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 반복해서 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어떤 경우에 발언되면 옳고 또 어떤 경우에 발언되면 그르다는 것을 습득하였다고 해서 이 말들로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이 말들은 특정한 개별적 대상을 언급하는 낱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적용되는 단일어-문장이다.<sup>4)</sup>

콰인은 어린아이가 어휘 습득의 초기단계에서 낱말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단일어로 된 ‘경우문장’을 배운다고 본다. 어휘 습득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은 어떤 물체가 불연속적이지만 되풀이해서 나타나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것은)엄마다.’라는 경우문장이다. ‘엄마’나 ‘우유’와 같은 단일어-경우문장이 발언되는 어떤 상황에 반복해서 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그 말이 어떤 경우에 발언되면 옳고 다른 경우에 발언되면 그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단일어-경우문장들에 찬성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경우문장을 예시적으로 습득하는 단계의 어린아이는 ‘엄마’나 ‘우유’라는 말을 엄마나 우유라는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들과 분명하게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가 감각적 자극과 반응의 단계를 넘어서 개별적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려면 어른처럼 개별화 명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시공간 속의 결합력있는 블록면체인

3) Quine, (1981), *Theories and Things*, 2-3 쪽 참조.

4) Quine, 같은 책 3쪽.

엄마라는 특정한 대상을 반복해서 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엄마를 하나의 개별적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엄마라는 대상과 다른 것들을 식별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마침내 ‘엄마’라는 말을 엄마라는 특정한 물리적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분리시켜서 언급하기 위한 하나의 개별화 명사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엄마라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엄마’라는 명사만 가지고는 엄마라는 대상들 하나하나를 다른 것들과 분리시켜서 언급할 수 없다. ‘엄마’라는 말을 어떤 개별적 대상을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언급하는 개별화 명사로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른의 개념구조를 갖추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엄마’라는 명사는 복수 어미, 대명사, 수사,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다’, ‘같다’나 ‘다르다’라는 말들의 사용에 숙달되지 않고서는 물리적 개별 대상을 언급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sup>5)</sup> 어린아이가 이 개별화 장치에 숙달되었을 때 비로소 ‘이 엄마’ ‘그 엄마’ ‘엄마들’ ‘다른 엄마’ ‘같은 엄마’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엄마라는 개별적 대상들 하나하나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정말로 개별화의 기술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실제로 ‘이 엄마’ ‘그 엄마’ ‘같은 엄마’ ‘다른 엄마’ ‘그 엄마들’이란 표현들을 정교하게 사용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것뿐이다.”<sup>6)</sup>

그런데 임의의 어떤 대상에 ‘엄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충분히 객관적 언급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임의의 어떤 엄마에 대한 객관적 언급은 반복적으로 예시되는 엄마라는 어떤 대상에 접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변별특징에 주시하고, 마침내는 엄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일성을 갖는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엄마’라는 명사와 그 밖의 개별화 장치를 사용하여 임의의 어떤 엄마에 대해 일반적 서술을

5) Quine,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31-32 쪽 참조.

6) Quine, 같은 책, 9쪽.

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즉 임의의 어떤 엄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리이러한 성질을 갖는 어떤 것’이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논지는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 언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화 명사와 그 밖의 개별화 정치를 사용하여 그 대상에 대해 일반적인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어떤 명칭이나 개체명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개별적 대상들에 대해 서술하는 일반 형식은 ‘이리이러한 속성을 갖는 어떤 것’ ‘이리이러한 속성과 저러저러한 속성을 갖는 어떤 것들’ ‘만일 어떤 것이 이리이러한 속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저러저러한 속성도 갖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 등등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일반적 서술은 (영어에서) 관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절 속에서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대목은 관계대명사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란 점에 유의해야 된다.<sup>7)</sup> 요컨대 대상들에 대한 언급은 ‘어떤 것들’ ‘어떤 것’ ‘모든 것’ ‘어떤 것도 … 아니다’로 표현되는 부분에 나타난다.

콰인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일반적으로 이론이 어떤 존재론적 언질을 주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을 더욱 명료하고 정확한 언어로 확립하기 위하여 일상 언어나 과학 또는 철학의 진술들을 양화논리학(술어논리학)의 양화방법에 호소해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 그 진술들은 일차 질서 진술들(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진술들)을 형식화하는 표준적 표기법과 술어계산 기술에 따라서 양화사, 변항, 술어표현, 논리상항들로 재구성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양화문장들에서 양화사는 변항들을 양화(속박)하는 데 사용된다. 보편양화사 (….)이나 특수양화사 ( $\exists$ …)에 의해서 속박된(양화된) 변항은 (x)나 ( $\exists x$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양화사에 대한 콰인의 해석 즉 언급적 해석에 따르면 ‘(x)’는 ‘모든 대상 x’, ‘( $\exists x$ )’는 ‘어떤 대상 x’나 ‘적어도 하나의 대상 x’로 읽는다. 그러나 술어를 표

7) Quine, (1981), *Theories and Things*, 8쪽 참조.

현하는 F, G, K, ... 등의 형식-문자나 요소문장들을 연결시켜 주는 부정, 동치, 연언, 선언 등의 논리상항들은 양화될 수 없다.<sup>8)</sup> 양화사에 의해 속박된 변항들은 가능한 값들의 영역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들이다. 이 점은 일차질서 진술을 형식화하는 표준적 표기법에 따라 일상언어, 과학, 철학의 진술들을 번역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개는 하얗다.”라는 진술을 임의의 어떤 개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선 특수양화사와 변항 x를 도입하고, ‘하얗다’라는 술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식문자 ‘W’를 취하여 표준적 표기법에 따라서 재구성해보면, “ $(\exists x)Wx$ ”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 양화문장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W인 대상 x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 비형식적으로 해석하면, “x는 하얗다는 명제를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 x가 있다.”라고 읽거나, “적어도 하나의 대상 x에 대하여 x는 하얗다는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읽을 수 있다.<sup>9)</sup> 이렇게 재구성된 문장을 보면, 양화사에 의해서 속박될 수 있는 것은 변항뿐이다. 이 속박변항은 변항의 값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의 영역 전체를 대표하는데, 일차양화에서 양화변항들은 개별적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값의 영역 전체를 대표한다.<sup>10)</sup>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차질서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8) Quine,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95쪽.

9) 이 양화문장 해석은 양화사에 대한 대상적 해석(언급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화사는 두 가지 방식—대상적 해석과 대입적 해석—으로 해석된다. 대상적 해석은 양화사에 의해서 속박되는 변항의 값 즉 변항의 값이 될 수 있는 대상들에 호소해서 “ $(x)Fx$ ”를 “영역 D의 모든 대상 x에 대하여 Fx”로 해석하고, “ $(\exists x)Fx$ ”를 “영역 D의 최소한 하나의 대상 x에 대하여 Fx”로 해석한다. 대입적 해석은 대상이 아니라, 변항에 대입될 수 있는 표현들(대입실례들)에 호소해서, “ $(x)Fx$ ”를 “F...’의 모든 대입실례들이 옳다.”라고 해석하고, “ $(\exists x)Fx$ ”를 “F...’에 대입되는 최소한 하나의 실례가 옳다.”라고 해석한다. 콰인은 양화사를 대상적으로(언급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대상적 해석 방식은 콰인의 양화이론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존재론과 양화양상 논리에 관한 견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Haack, (1978), *Philosophy of Logics*, 42-49 쪽 참조.

10) 프레게의 노선을 따르는 양화이론에 의하면, 일차술어계산에서 양화사는 “ $(x)Fx$ ”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적 대상들을 값으로 갖는 개체변항 x, y, z 등만을 속박한다. 그러나 이차술어계산에서는 “ $(x)(F)Fx$ ”와 같이 양

형식화하는 표준적 표기법과 양화계산 기술에 따라 번역한 일차양화 진술은 그 양화변항이 개별적 대상들을 값으로 갖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차양화에서 양화변항들은 언제나 개체변항들이다. 개체변항에 대입될 수 있는 표현들은 전형적으로 명칭들이나 그밖의 다른 개체명사들일 텐데, 이 개체명사들은 그 변항의 값의 영역에 속하는 개별적 대상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일차양화에서는 속성을 표현하는 술어-문자와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문자와 같은 형식-문자들은 양화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은 대상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한 형식문자들에 대한 대입표현들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들은 어떤 개별적 대상을 지적하거나 어떤 종류의 비언어적인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변항은 대입될 수 있는 값들 즉 대상들의 영역 전체를 대표하는 반면에, “형식문자는 대입표현들만 있을 뿐 값은 없다.”<sup>11)</sup> 따라서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은 형식-문자들이 아니라 속박변항들이다.

지금까지의 과인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언어로 ‘어떤 것’ ‘어떤 것들’ ‘모든 것’ ‘어떤 것도 ... 아니다’라고 표현되는 대명사들에 대한 형식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속박변항이 대상들에 대해 언급하는 일차적 도구다.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문장들 속에서 존재론적 언질이 나타나는 부분은 속박변항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의 담화나 과학의 이론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항을 양화하는 일을 통해서 변항의 값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요컨대 “존재한다는 것은 변항의 값이 된다는 것이다.”<sup>12)</sup> 과인은 이 유명한 진술을 일상의 담화나 과학의 이론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준 즉 이론의 존재론적 언질 기

---

화사가 일반적으로 속성을 서술하는 술어-문자 F, G, K 등과 같은 형식-문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차술어계산에서 양화사는 “ $(p)(p \vee -p)$ ”와 같은 양화문장에서처럼 일종의 무항 술어로 간주될 수 있는 문장을 나타내는 문장-문자 p, q, r 등을 속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차 양화문장은 속성이나 명제를 속박변항의 값으로 가질 수 있다.( Haack, (1978), 40-41쪽 참조.)

11) Quine, (1969-B), “Existence” in *Physics, Logic, and History*, 90쪽.

12) Quine,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5쪽.

준으로 삼는다.

과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에 따르면 이론은 그 이론 속의 긍정진술들을 옳은 진술로 만들어주는 것들만을 속박변항의 값으로 취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존재를 인정한다는 언질을 준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일상의 담화나 과학의 이론들에 나타나는 진술들(일차질서 진술들)을 과인의 양화이론에 따라 양화할 경우, 속성이나 명제와 같은 것들은 속박변항의 값이 될 수 없고, 오직 대상들만이 속박변항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담화나 이론들이 어떤 종류의 대상들을 변항의 값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존재론도 달라진다. 어떤 이론이 구체적 개별 대상들을 변항의 값으로 취한다면, 그 이론은 구체적 개별 대상들에 대해서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언질을 준다. 어떤 이론이 구체적 물리 대상들과 추상적 대상들을 변항의 값으로 취한다면, 그 이론은 구체적 물리 대상들과 추상적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종류라는 존재론적 언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원자’를 기초로 해서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원자론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체들이 아니라 원자들이라는 존재론적 언질을 준다. 원자 이하의 소립자들을 물리적 세계 설명의 기초로 삼고 소립자들의 운동과 배열 상태를 설명하는 미시물리학 이론은 소립자들이 기본적인 존재유형이라는 존재론적 언질을 준다. 만일 어떤 이론이 물리적 사물, 수, 집합과 같은 것들을 변항의 값으로 취한다면, 그 이론은 그러한 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항의 값이 된다는 것이다.”라는 존재론적 언질 기준에 따라 일상의 담화나 과학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면, 그 담화나 이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고, 존재론들 간의 차이가 이론들에 사용된 속박변항들의 값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쟁하는 존재론들 간에 어떤 것이 옳은가, 속박변항의 값의 영역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과인의 기준은 존재론을 구성하거나 결정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콰인이 존재 문제를 언어적 수준에서 탐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sup>13)</sup> 한 가지 이유는 콰인은 McX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명히 McX의 존재론을 거부하겠지만, 적어도 존재론적 언질 기준에 의해 McX가 긍정하는 진술들의 특징을 밝히고, 자신과 McX의 불일치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존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콰인의 기준에 따르면 존재론의 불일치는 근본적으로 개념체계(언어체계 또는 이론체계)의 불일치다. 어떤 개념체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존재론도 달라진다. McX와 콰인이 서로 다른 개념체계를 채택한다면 물론 존재론도 불일치하겠지만, 존재 문제를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관한 문제로 전환시켜 논의하게 되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반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 3.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은 존재 문제에 대한 끝없는 의견 대립을 피하고, 합리적 토론에 의해 존재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으로서 건전한 존재론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콰인의 기준을 모든 분석철학자들이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굿맨 같은 사람은 콰인의 기준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존재론적 탐구의 인지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의를 인정한다 해도 콰인이 제안한 기준은 존재론 탐구에 정교한 논리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콰인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분석철학자들이 콰인의 기준이 존재 문제에 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콰인의 기준을 다소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13) Quine, 같은 책, 16 쪽 참조.

1) 콰인의 기준에 대한 와녹의 비판

와녹은 콰인의 기준이 논리학에다 형이상학적 견해를 혼합시킨 위장된 형이상학적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와녹은 집합이나 수에 관한 수학적 탐구에 플라톤주의나 반플라톤주의를 개입시켜 수나 집합에 관해 양화하고 그것들의 존재 문제를 논의하는 일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다.<sup>14)</sup> 와녹은 “적어도 하나의  $x$ 값은  $x=7-3$ 이다.”와 같은 진술을 다루고 있는 학생의 경우 플라톤으로부터  $7-3$ 과 같은 수인  $4$ 가 존재하는지 어떤지에 대해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순전히 수학적 계산에 의해 그 진술의 옳음이나 그름을 알 수 있으므로, 수나 집합과 같은 추상적 대상들의 존재 문제를 수학적 탐구에 개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와녹의 비판은 존재론적 탐구에 관한 콰인의 제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콰인의 기준은 애초에 수학 탐구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수학에 존재론을 연루시키고 수학적 탐구와 존재론적 탐구를 뒤섞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콰인은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집합론이나 수론과 같은 수학적 이론들과 자연과학의 이론들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존재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론의 진술들을 양화사, 변항, 술어표현, 논리상항을 갖는 양화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양화변항의 값을 확인함으로써 그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존재론적 언질을 명료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기준은 수학 탐구의 방법이 아니라, 수학적 이론들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의 존재 문제를 밝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의 수학자가 수학적 탐구와 수학에 관한 철학으로서의 존재론적 탐구 이 두 종류의 탐구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그가 수학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를 할 때는 수학철학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수학적 탐

14) Warnock, (1980), “Metaphysics in Logic” in *Outline of Nominalist Theory of Propositions*, 87쪽.

구를 하면서 존재론적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니다.

2) 콰인의 기준에 대한 카트라이트의 비판

카트라이트는 와낙처럼 콰인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콰인이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려고 하면서 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변항의 값’이란 개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카트라이트는 콰인이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제시하는 여러 대목에서 ‘반드시 ...이어야 한다’나 ‘...해야 한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콰인 자신이 불명료하다고 생각해서 피하려고 했던 ‘분석적’이나 ‘필연적’이란 개념과 같은 것임을 지적한다.<sup>15)</sup>

콰인은 『날말과 대상』, 『이론과 사물』, 「지칭과 실존」, 「있는 것에 관하여」, 「존재론에 대한 카르납의 견해에 관하여」, 「존재론과 이데올로기」 등의 글에서 존재론적 언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것마다 조금씩 다른 어휘를 사용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론의 존재론은 그 이론 내에서 긍정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진술들이 옳기 위해서 반드시 속박변항들의 값이 되어야 하는 대상들로만 구성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러이러한 대상들이 반드시 속박변항들의 값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들이 속박변항들의 값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데, ‘필연적’이란 용어는 ‘분석적’ ‘수반한다’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콰인 자신이 불명료하다고 생각해서 기피했던 의미론적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카트라이트는 만일 콰인이 스스로 불명료하다고 주장한 그러한 용어들을 피할 수 없다면, 명료성에 대한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도 ‘분석성’이나 ‘필연성’ 개념 못지않게 불명료하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15) Cartwright, (1954), “Ontology and the Theory of Meaning” in *Philosophy of Science* XXI, 578쪽.

16) Cartwright, 같은 책, 578쪽.

더 나아가 카트라이트는 콰인의 기준에서 핵심적인 ‘변항의 값’이란 개념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콰인의 기준을 수정한다. 콰인의 기준에 의하면 이론은 그 이론의 변항의 값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준다. 그러나 카트라이트는 모든 이론의 변항들의 값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콰인의 기준이 언제나 이론의 존재론적 언질을 밝히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7)</sup>

그는 ‘이론’을 형식화된 언어 즉 확정된 어떤 해석이 부여되는 기호들의 논리적 표현체계라고 보고,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지배하는 통사론적 규칙과 의미론적 규칙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론들 중에도 특히 기초이론에 관심을 갖는데, 문제의 기초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론의 어휘가 무수히 많은 변항과 일정한 수효의 술어상항, 특수양화사와 보편양화사, 선택된 몇 가지 진리함수연결사, 괄호나 구두점과 같은 고안물을 갖추고 있다. 둘째, 기초이론의 문장들은 원자문장들로 이루어진다. 셋째, 기초이론은 속박변항과 자유변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을 갖는다. 넷째, 기초이론의 공리들과 추리규칙들은 그 기초이론 안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함수계산에 대한 논리적 기술을 마련해 준다. 다섯째, 모든 기초이론은 양화사와 진리함수연결사에 대해 정상적 해석을 한다.<sup>18)</sup>

카트라이트는 이 기초이론들 가운데는 변항들의 값의 영역이 제한된 것과 제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콰인의 기준은 변항들의 치역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초이론들의 존재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19)</sup> 기초이론의 변항의 값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대상들이 그 이론의 공리들을 만족시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의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이론들의 존재론은 구별될 수 없다. 그래서 카트라이트는 변항의 값의 영역이 한정되지 않

17) Cartwright, 같은 책, 578-579쪽.

18) Cartwright, 같은 책, 576쪽.

19) Cartwright, 같은 책, 579쪽.

은 기초이론들에 대해서 존재론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되는 수정된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의 기초이론  $T$ 는  $T$  속에 오직  $\alpha$ 를 유일한 자유변항으로 갖는 개방문장  $\emptyset$ 가 있을 경우에만  $K$ 라는 종류의 대상들을 가정한다. 이 경우 (1) “ $(\exists \alpha) \emptyset$ ”가  $T$ 의 정리이고, (2)  $T$ 의 의미론적 규칙들로부터 모든  $x$ 에 대해서  $\emptyset$ 는 오직  $x$ 가  $K$ 의 구성원인 경우에만  $x$ 에 대해 옳다는 것이 도출된다.<sup>20)</sup>

카트라이트는 이 기준에 사용된 ‘의미론적 규칙’을 설정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는 의미론적 규칙이 첫째, 낱말의 모든 원자문장에 대해 일련의 대상들이 어떤 조건 아래서 그 원자문장을 만족시키는가를 진술하고, 둘째, 변항들의 값의 영역을 정하고, 셋째, 진리함수연결사들과 양화사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진리성 규칙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면, 자신이 제안한 기준은 콰인의 기준이 갖는 불명료한 점과 변항의 값이 한정되지 않은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1)</sup>

그러나 카트라이트가 콰인의 기준에 사용된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표현과 콰인이 의미론적 탐구의 언급이론 쪽의 주제들에 비해 탐구의 효과, 의의, 가치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의미이론 쪽에 속하는 개념으로서의 ‘필연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콰인이 문제로 삼는 ‘필연성’은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의 근본적 구별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논리적 필연성 개념의 정의 문제와 양상논리학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 필연성 개념의 적용 범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콰인의 기준에 사용된 ‘반드시 ...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그 기준이 옳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게 아니고, 이론의 속박변항들의 값이 그 이론의 진술들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사실 콰인의 기준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

20) Cartwright, 같은 책, 582쪽.

21) Cartwright, 같은 책, 583쪽 참조.

하지 않고도 (원래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은 그 이론 안에서 긍정적 주장을 하고 있는 진술들을 옳게 만들어 주는 것들에 대해서만 속박변항의 값이 될 수 있다는 언질을 준다.”와 같은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카트라이트의 첫째 비판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카트라이트의 둘째 비판은 콰인의 기준이 변항들의 값이 제한되지 않은 기초이론들의 경우에 존재론들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므로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도 존재론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적절한 존재론적 언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그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 그런데 콰인도 이 점을 인식했는지 이론의 존재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석규칙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론의 논리적 형식을 해석할 때 의거할 수 있는 규칙은 단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22)</sup> 또한 콰인 자신이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단지 존재론 탐구를 위한 하나의 모범례로 보고 있다<sup>23)</sup>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카트라이트가 제안한 기준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 3) 콰인의 기준에 대한 콘맨의 비판

콘맨은 콰인의 기준에 대해 카트라이트보다 더 철저한 비판을 가한다. 콘맨은 콰인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론의 존재론적 언질을 밝힐 수 없으려면 특정한 언급이론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언급이론은 승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콰인을 공격한다. 콘맨은 ‘개밥바라기’(Hesperus), ‘금성’(Venus), ‘셋별’(Phosphorus)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언급하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들을 포함하는 언어나 이론을 살펴보면, 콰인의 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4)</sup>

22) Quine,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53쪽.

23) Quine, (1983), “Ontology and Ideology Revisited” in *Philosophical Subjects*, 500 쪽.

콰인의 기준에 따르면, “개밥바라기는 실재한다.”는 진술이나 이 진술을 함의하는 진술을 포함하는 이론은 오직 이 진술이 그 이론에서 긍정적 주장을 하는 진술로 사용될 경우에만 개밥바라기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주게 된다. 또 “셋별은 실재한다.”는 진술이나 “금성은 실재한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이론 역시 이 진술들이 반드시 그 이론 속에서 긍정적 주장을 하는 진술이고 또 옳은 진술이 되도록 사용될 경우에만 셋별이나 금성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금성’ ‘셋별’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 진술들을 포함하는 이론이 그 진술들 모두를 그 이론 속에서 옳은 주장을 하는 진술이 되도록 사용함으로써 금성, 셋별, 개밥바라기가 존재한다는 언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콘맨의 주장이다.

콘맨은 콰인의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의미는 같지만 동일한 대상을 언급하는 용어들을 포함하는 이론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콰인의 기준이 이론의 존재론적 언질을 밝힐 수 있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들의 언급기능에 관한 어떤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sup>25)</sup> 콰인의 기준은 어떤 언어적 표현 ‘P’가 무엇인가를 언급한다면 그 표현은 오직 하나의 어떤 대상 P를 언급할 수 있다는 언급이론(라일 식의 ‘피도이론’)을 전제해야 “P가 실재한다.”는 주장이 P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콰인은 ‘피도’라는 말이 피도라는 대상을 언급할 때 의미를 갖는다는 ‘피도이론’ 자체를 정당화해야 된다. 그러나 피도이론은 ‘개밥바라기’ ‘셋별’ ‘금성’이란 언어적 표현이 모두 동일한 대상을 언급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언어의 언급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서 성립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콘맨은 콰인의 기준이 스스로 비판했던 ‘가능한 것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마이농 식의 존재론적 기준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주장한다.<sup>26)</sup>

24) Cornman, (1963), “Language and Ontology” in *The Linguistic Turn*, 164쪽.

25) Cornman, 같은 책, 165쪽.

26) Cornman, 같은 책, 165쪽 이하 참조.

그러나 콰인은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확립하기에 앞서서 이미 양화사에 대한 언급적 해석(대상적 해석)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해서도 양화사에 의해 속박되는 변항의 값이 대상을 언급하도록 속박변항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콰인의 기준은 콘맨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도이론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 ‘금성’ ‘개밥바라기’ ‘셋별’이란 표현은 콰인의 제안에 따라 ‘이러이러한 속성’에 대해 기술하는 술어표현과 그 술어표현이 적용되는 변항과 양화사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포함하는 이론은 결국 변항의 값으로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는 어떤 대상만을 인정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만 존재론적 언질을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도이론’은 콰인 자신이 ‘박물관 신화’<sup>27)</sup>라는 경멸적 표현을 써서 거부하고 있는 이론이다.

#### 4) 콰인의 기준에 대한 스트로슨·마르쿠스·처취의 비판

양상논리, 2차양화논리, 내포논리를 승인하는 스트로슨, 마르쿠스, 메이츠, 처취 등은 양화사에 대한 대입적 해석(대입 양화)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콰인의 대상적 해석(대상 양화) 자체를 문제삼는다. 대상적 해석(언급적 해석)에 관한 그들의 비판적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논리철학적 탐구가 요구되므로, 여기서는 존재론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 살펴보겠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콰인이 이론의 속박변항들의 값으로 대상들만을 가정하도록 양화사를 대상적으로 해석하여 논리학을 존재문제에 개입시킴으로써 양상논리학, 2차양화논리학, 내포논리학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sup>28)</sup>

콰인은 이 비판에 대해 자신은 논리학을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다른 과학들과 일상의 언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논리학적 탐구를 존재론 탐구와 무관하게 진행시킬 수 없다고 응수한다. 논리학을 존재론 탐구에 활용하여, 이론의 속박변항들을

27) Quine,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27쪽

28) Haack, (1978), *Philosophy of Logics*, 49-52쪽.

통해서 대상들을 언급하도록 대상 양화(대상적 해석, 또는 언급적 해석)를 하게 되면, 이론이 세계에 관하여 존재론적으로 어떤 언질을 주고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양화사를 대입적으로 해석하여 속박변항의 값으로 대상들만이 아니라 대입 가능한 모든 표현을 인정한다면, 이론이 어떤 것들에 대해 존재론적 언질을 주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화문장에 나타난 양화사를 대입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속박변항들의 값으로 대입될 수 있는 표현만 있으면, 대입표현이 문장이든 공식이든 개체명사든 추상명사든 상관없이 양화형식문들은 옳은 진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화형식문들이 대입적으로 해석되는 이론에서는 속박변항이나 논리적 연결사나 형식문자 등이 의미있게 구별되지 못할 뿐 아니라 속박변항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에 관하여 특정한 언질을 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론의 속박변항이 대입적으로 양화되는 한 존재론은 개체니 명제니 속성이니 가능한 것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들로 들끓을 것이며,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입 양화는 명칭들과 다른 어휘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방식도, 진정으로 대상을 언급하며 값을 갖는 변항들과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표현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방식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론의 양화사를 대입적으로 해석하는 한 그 이론의 존재론은 무의미하다.<sup>29)</sup>

더욱이 대입 양화는 추상적 대상과 가능한 대상, 문장들에 의해 주장되는 명제, 술어들에 의해 기술되는 속성까지도 변항의 값으로 인정함으로써 철학에 오랜 고질병이 되어 왔던 ‘본질주의’<sup>30)</sup>와 존재론의 무질서

29) Quine,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66쪽

30) 콰인은 (양화)양상논리학에 반대한다. 양상논리학을 승인하는 사람들은 양상논리학의 핵심개념인 ‘필연성’을 사물의 양상으로 해석하여 양상문맥을 양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본질주의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콰인은 본질주의가 극복할 수 없는 난점을 가진 철학적 신조이므로 양상논리

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과인은 대입 양화를 반대한다.

과인이 대입 양화를 반대하고 대상 양화를 주장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론이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진정한 과학적 이론일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와 관련을 맺어야 하며, 세계에 대해 무언가 언급하는 바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존재론의 주제는 개별과학이 문제로 삼는 것들보다 범위가 아주 넓고 존재론적 탐구는 개별과학의 이론들에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존재론의 목표 역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탐구가 세계 이해를 목표로 삼는 과학의 일부라면, 양화사를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과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과인은 이렇게 양화사를 대상적(언급적)으로 해석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것들에 관해 연결을 주고 있다는 점과, 속박변항들의 값으로는 이론의 양화형식 문들을 옳은 진술로 만들어줄 대상들, 즉 개별적 대상들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학 역시 극복할 수 없는 난점을 갖는다고 본다. 본질주의에 의하면 사물은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을 갖는데, 어떤 사물이 특정한 속성을 본질로 갖는다는 말은 그 사물이 그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떠한 가능한 상황에서도 필연적으로 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자기동일성이라는 속성을 본질로서 갖지만, 대머리라는 속성은 그저 우연히 갖는다. 필연성을 속성으로 보고 사물양상을 승인하는 사람들은 사물이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갖는다고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필연성이라는 양상을 양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인은 본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본질적 속성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본다. 본질적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과인은 사물의 본질이란 그 사물을 언급하는 낱말의 내포라고 본다. 따라서 본질을 거론하는 양상문맥의 필연성은 그 문맥을 이루고 있는 낱말들의 내포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성이란 사물 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들에 관해 말하는 방식 속에 있다. 이와 같이 과인은 필연성을 사물의 양상이 아니라 명제의 양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필연성이라는 양상을 양화하는 양상논리학을 부정한다. Quine, (1953), 22쪽,149쪽 참조. Quine, (1966-A), 175-176쪽 참조.

## 4. 맺는 말

콰인은 존재 문제를 언어적 수준에서 탐구한 결과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다. 앞에서 검토해보았듯이 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콰인의 제안대로 이 기준을 존재론 탐구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존재론을 탐구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있다면 존재론 탐구가 통찰이나 직관을 내세운 끝없는 형이상학적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과학의 한 분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사실 콰인의 기준은 논리실증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분석철학자들의 형이상학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고 분석철학 자체 내에 존재론 탐구에 대한 진정한 철학적 관심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존재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콰인의 기준에 따라 이론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면, 그 이론들에 함축된 존재론을 밝힐 수 있고, 존재론들 간의 차이가 이론들에 사용된 속박변항들의 값의 차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 기준은 경쟁하는 존재론들 간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존재론적 언질 기준은 실제로 어떤 존재론을 채택할 것인가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 콰인의 기준에 따르면 존재론은 이론이 속박변항의 값으로 어떤 것들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존재론은 이론(개념체계)에 상대적이다. 존재론은 이론에 상대적으로 확정되므로 존재론을 채택하는 문제는 결국 이론(개념체계)의 채택 문제가 된다. 어떤 개념체계를 채택할 것인가는 개념체계의 유용성에 달려 있고, 개념체계의 유용성은 관점에 상대적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sup>31)</sup> 어떤 목적에서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개념체계를 채택하게 된다. 그래서 콰인은 서로 다른 존재론들을 판정하고 채택하는

31) Quine,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9쪽.

문제는 목적과 관점에 따른 결단의 문제라고 본다.

콰인 자신은 물리적 개별 대상들을 속박변항들의 값으로 인정하는 개념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콰인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들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리적 대상들만으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32)</sup> 예컨대 물리적 대상들  $x$ 와  $y$ 가  $z$ 마일 떨어져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특정한 숫자를 사용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물리적 대상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 더 명확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양적 법칙들이 필요하다. 양적 법칙들에 의해 세계를 설명하려면, 최소한 물리적 대상들의 집합들과 실수, 무리수, 초월수, 상수 등의 수들을 보조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콰인은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개별 대상들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집합들과 수들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박변항들을 사용하는 개념체계를 채택할 것을 권한다.<sup>33)</sup>

하나의 개념체계를 채택하고 그에 따르는 존재론을 채택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목적과 관점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다만 분명하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관용과 실험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것뿐이다.”<sup>34)</sup>고 콰인은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과 관점에 따라 그리고 관용과 실용주의 정신에 따라 존재론을 선택한다면 또 다시 존재론 분야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음양 오행설이나 퀴크 이론, 보편자나 가능한 것들에 관한 이런 저런 이론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실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콰인이 애초에 존재론적 언질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피하려 했던 끝없는 존재론적 논쟁을 다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콰인의 존재론적 언질기준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

32) Quine, (1981), *Theories and Things*, 13-16쪽 참조.

33) Quine, 같은 책, 10-18쪽 참조.

34) Quine,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9쪽.

범론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갖으려면, 이론들에 함축된 존재론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일이 아니라, 변항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과인처럼 이론의 속박변항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정함으로서 어떤 존재론이 옳은 존재론인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과인은 이론을 옳게 만들어주는 변항 값으로 개별적 대상들만을 허용하는 대상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과인 자신은 개인적으로 실험정신에 따라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존재론적 언질 기준이 변항의 값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론이 옳은 것인지, 어떤 존재론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바가 없다.

그러나 과인의 말대로 존재론 탐구가 세계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학의 한 부분이라면, 존재론 탐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제시된 존재론적 언질 기준이 이론에 함축된 존재론을 밝히는 데서 머물지 말고, 여러 존재론들 간에 옳은 존재론을 채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존재론 탐구가 과학의 한 분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어떤 과학도 단지 관점과 목적에 따라 이론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과학은 무엇보다도 세계와 세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실들에 일치하는 옳은 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존재론적 탐구가 포괄적 세계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학의 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과인의 기준이 존재론 탐구의 진정한 방법일 수 있으려면, 세계 이해를 옳게 해주는 것만을 변항의 값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양화사를 해석하도록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참고문헌

- 로마노스(Romanos,G.D.), 『콰인과 분석철학』 (*Quine and Analytic Philo-sophy*), 곽강제 역, 한국문화사, 2002.
- Carnap, R., (1950), “Empiricism, Semantics, and Ontology”, in *The Linguistic Turn*, ed. Ro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Cartwright, R., (1954), “Ontology and the Theory of Meaning” in *Philosophy of Science* XXI.
- Cornman, J., (1963), “Language and Ontology” in *The Linguistic Turn*, ed. Ro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_\_\_\_\_, (1976), “Reference and Ontology : Inscrutable but Not Relative” in *The Monist* LIX. pp.353-372.
- Haack, S., (1978), *Philosophy of Log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e, W.V.,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61.
- \_\_\_\_\_, (1960), *Word & Object*, The MIT Press, 1975.
- \_\_\_\_\_, (1961), “Identity, Ostension, and Hypotas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 \_\_\_\_\_,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69-B), “Existence” in *Physics, Logic, and History*, ed. W. Yourgrau, New York.
- \_\_\_\_\_. (1981),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niv. Press.
- \_\_\_\_\_, (1983), “Ontology and Ideology Revisited”, in *Journal of Philosophy*. Vol. 80.
- \_\_\_\_\_, (1986), *The Philosophy of Quine*, ed. L.E. Hann & P.A. Schilpp, 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
- Warnock, G.J., (1980), “Metaphysics in Logic” in *Outline of Nominalist*

철학탐구 제30집

*Theory of Propositions*, ed. Gochet P., D.Reidl.

## **A Critical Examination on Quine's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Lee Myoung Suk

Quine is a major representative of the tradition of analytic philosophy that derives from Frege and Russell. But Quine, as an analytic philosopher and logician, would overcome the prevailing hostility to metaphysics that pervaded analytical philosophy during the period when it was dominated by logical positivism and establish metaphysics as a science. Quine is just as hostile to the excesses of speculative and transcendent metaphysics as were the positivists. Quine would revitalize and rehabilitate metaphysics as ontology.

Quine approaches this problem by the method of semantic ascent. By this strategy questions about the world are replaced with questions about language, that is, clarifying ontological commitments of ordinary discourse, philosophical statements or scientific theories. This can be done by reconstructing the formulation of the questions with which ontology deals in accordance with the guiding principles of modern logic. We seek to determine the ontological commitments embedded in such discourses or theories, the first thing we must be prepared to do is rewrite the relevant statements to disclose their underlying logical patterns. We could then be clear about what can be profitably inquired into, where legitimate differences arise among competing ontologies, and how one might proceed to try to resolve these differences. Quine calls it the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To sum up, Quine's famous statement, "To be is to be the value of a variable" serves as a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According to this criterion,

ontology is relative to specific theory.

But Quine's criterion could not gained all analytic philosopher's wholehearted approval. So I will examine how Quine's criterion can be maintained succesfully despite of various kinds of criticism on it.

Key words: linguistic strategy, method of ontological inquiry,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variable, values of variable

이명숙 e-mail: kwak1024@jbnu.ac.kr

투 고 일	2011년 10월 13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21일